

# 현대 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 再考\*

허 설 영\*\*

## <목 차>

1. 서론
2. 부사 '就'의 분류
3. 부사 '就'의 문법화
4. 부사 '就'의 의미기능
  - 4.1 부사 '就'의 기본의미
  - 4.2 부사 '就'의 파생의미
5. 결론

## 1. 서론

현대 중국어 부사 '就'는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용빈도 또한 상당히 높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就'는 대체적으로 시간부사, 접속부사, 범위부사 및 어기부사로 나뉠 수 있다. 또한,李宗江(1997), 范立珂(2009b), 徐娟(2003), 주기하(2013), 이은수(2012) 등이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부사 '就'는 동사 '就'에서 문법화 되었고,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就'는 연결기능과 배타기능(혹은 유일화 기능)을 지니고 있다. 《現代漢語八百詞》, 《實用現代漢語語法》 등과 같은 기존 서적, 혹은 史金生(1993), 王還(1956/2012) 등과 같

\* 이 논문은 2015년 고려대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은 기존 논문에서 단순히 ‘就’의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을 나열한 데에 비해, 范立珂(2009b), 徐娟(2003), 주기하(2013), 이은수(2012) 등은 ‘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연결시키는 기본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즉,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각각 시간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에서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시간부사 및 접속부사 ‘就’와 상반된 의미에서 배타성(혹은 유일성)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就’가 문법화 과정에서 왜 의미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유형의 부사로 나뉘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선행연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부사 ‘就’의 분류가 잘 못된 경우가 있으며, 분류가 잘 못된 채로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많은 학자들이 ‘就’가 시간 성분과 함께 출현할 경우, 시간부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小學四年級就趕上了那場革命。”(施關淦1987:190)과 같이, 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성분은 ‘就’가 아니라 ‘小學四年級’이다. ‘就’가 없어도 ‘他趕上了那場革命’이라는 사건은 ‘小學四年級’ 시절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就’는 시간부사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就’가 동사 ‘就’에서 부사 ‘就’로 문법화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발전하였으며, ‘就’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문법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정을 한 다음, ‘就’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또한, ‘就’의 의미기능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우선 부사 ‘就’의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여,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의 제 2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就’의 유형을 수정하고, 제 3절에서는 부사 ‘就’가 어떻게 문법화 되었는지 알아 볼 것이며, 제 4절에서는 ‘就’의 기본의미와 파생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 부사 '就'의 분류

기존 연구에서 부사 '就'에 대한 분류의 문제점은 주로 시간부사 '就'에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我這就來。  
곧 가겠습니다.
- b. 風早晨就住了。  
바람은 아침에 이미 멈췄다.
- c. 站起來就走。  
일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내딛는다.
- d. 我本來就不懂法語。  
난 원래부터 불어를 모른다.

예문(1)의 네 문장은 주기하(2013:131)가 《中韓辭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판)에서 분류한 시간부사를 인용한 것이다. 필자는 예문(1)에서 (1a)의 '就'만 시간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馬慶株(2000)에 따르면, 시간부사는 참조시간 혹은 발화시간과의 先時, 同時, 後時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예문(1)의 네 문장에서 (1a)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시간부사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 (2) a. \*我這來。  
b. 風早晨住了。  
바람은 아침에 멈췄다.
- c. 站起來走。  
일어나서 가.
- d. 我本來不懂法語。  
(나는 원래 불어를 모른다.)

예문(2)번은 (1)에서 ‘就’를 삭제한 문장이다. 부사 ‘就’가 출현한 (1)과 비교한 결과, (1a)에서 ‘就’를 삭제하면 동사‘來’의 발생시간을 제공해 줄 성분이 없다. 문장의 지시 대사 ‘這’는 홀로 동사‘來’의 발생시간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는 즉 ‘就’가 여기에서 사건의 발생 시간을 나타내며, 발화시간을 참조시간으로 보았을 때, 後時性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부사의 정의에 부합하다. 예문(2b)는 ‘就’를 삭제하여도 문장이 성립되며, 사건 ‘바람이 멈춘’ 시간은 문장의 다른 시간 성분 ‘早晨’이 제공해주고 있다. ‘就’가 삭제되므로, 이 문장은 객관적으로 ‘바람이 멈춘’시간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就’가 출현하였을 경우에는 화자가 보기에 ‘바람이 멈춘’시간이 ‘아침’이라는 점이 매우 이르다고 판단하기에 ‘이미’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 문장에서 ‘就’의 주요 기능은 시간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2c)는 (1c)에서 ‘就’를 삭제한 문장이다. 이 문장의 특징은 한 문장에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학자들이 이런 유형의 문장에 출현한 ‘就’를 시간부사로 분류한 이유는 ‘就’가 선행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 바로 후행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就’를 삭제한 (2c)도 ‘站起來’한 다음 ‘走’라는 동작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단지 ‘就’가 빠지면서 문장의 정문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就’는 여기에서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접속사가 빠졌으니 당연히 어색하기 마련이다. 이 문장의 구조적 특징을 보았을 때, 劉月華(2001)가 제기한 緊縮句, 즉 긴축문에 해당한다. 劉月華(2001)에 따르면, 긴축문이란 두 개의 술어성분 혹은 동사성분이 하나의 단문에 출현하는 경우인데, 이는 두 개의 복문을 한 문장에 압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긴축문의 두 술어사이에는 선후 연결 관계(承接), 조건 관계(條件), 양보 관계(讓步), 인과관계(因果) 등과 같은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두 술어 사이에는 서로 포함하거나 수식하는 관계는 아니어야 된다. 예문(1c)가 바로 이러한 긴축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예문(1c)에는 하나의 단문에 ‘站起來’와 ‘走’ 두 개의 술어 성분이 출현하였으며, ‘站起來’가 발생한 다음 이어서 ‘走’라는 동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 사이는 선후 연결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站起來'와 '走'는 서로 포함하거나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두 개의 복문을 압축한 긴축문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출현한 '就'는 마땅히 접속 부사로 간주해야 된다. 이와 같은 긴축문은 《現代漢語八百詞》와 《實用現代漢語語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컨대, "說完就走/說干就干/他一畢業就回國了/他病好了才告訴他媽媽" 등이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這課書他念了三十分鐘就會背了/這課書他念了三十分鐘才會背"와 같이, 문장에 비록 두 개의 술어 성분이 출현하였지만, 선행 술어가 후행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긴축문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d)는 (1d)에서 '就'를 삭제한 문장인데, 두 문장은 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전부 존재한다. 공통점은 '本來'에 해당되는 시점(혹은 시량)에는 불어를 할 줄 모른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就'를 사용함으로써 '원래부터 몰랐다'는 반박의 어기가 추가되면서, 주로 다른 사람의 '불어를 할 줄 몰라?' 등과 같은 질문에 반박하는 대답으로 사용된다. 이때 '就'는 시간의 의미가 아닌 반박의 어기를 나타낸다. (2d)는 '就'가 삭제되었으므로, 원래 불어를 못했다는 의미만을 알 수 있으며, 발화시간에는 불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상으로 논의 한 결과, 본고에서는 문장에 사건의 발생시간을 제공하는 다른 시간 성분이 없는 경우, 부사 '就'가 아니면, 사건의 발생시간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만 시간부사 '就'로 간주해야 된다고 본다. 다음 예문과 같이 문장에 다른 시간 성분이 출현하였으며, 부사 '就'는 사건의 발생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부 評註性 부사<sup>1)</sup>로 간주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評註性 부사는 張誼生(2000)이 제기한 용어이며, 화자가 사건 혹은 명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사이다. 허설영(2013)에서는 이를 평가형 부사로 간주하였는데, 본고에서는 評註性 부사로 통일하겠다.

- (3) a. 明天就可以出門了。/明天可以出門了。  
내일은 벌써 외출해도 된다.
- b. 一退休沒几个月就生了小孫女。/退休沒几个月生了小孫女。  
퇴직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손녀를 보았다.
- c. 不知不覺就凌晨了。/不知不覺凌晨了。  
어느새 벌써 새벽이 됐다.
- d. 起床的時候就已經下午一点多了。/起床的時候已經下午一点多了。  
일어났을 때 벌써 오후 한시가 넘었다.

BBC 코퍼스

예문 (3)은 한 문장에서 다른 시간 성분이 ‘就’의 앞 혹은 뒤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3a)에서 ‘就’는 화자가 보기에 ‘明天可以出門了’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기대보다 일찍 발생하였음을 나타내고, (3b)에서도 ‘就’는 ‘生了小孫女’라는 사건이 ‘休后沒几个月以后’에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화자가 보기에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손녀를 보았다’는 주관적인 양태를 나타낸다. (3c)또한 ‘就’가 ‘날이 밝았다’는 사건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생각하기에 날이 예상보다 일찍 밝았음을 나타낸다. (3d)에서 시간성분은 ‘就’ 뒤에 출현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就’는 시간의미보다는 화자가 보기에 일어나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상으로 분석한 네 문장에 출현한 시간 성분은 전부 시점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시량을 나타내는 성분,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과 함께 출현하여, 역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就’도 評注性 부사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 a. 全場最低七折活動還有三天就結束了。  
매장 전체 최저 30% 할인 이벤트는 3일후에 벌써 끝난다.
- b. 有兩碗就吃飽了  
두 그릇만 먹으면 배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예문 (4)와 같이 수량 성분 혹은 시량 성분이 ‘就’앞에 출현하고, 술어 성분이 ‘就’ 뒤에 출현할 경우에는 ‘就’

를 강하게 읽지 않으며, 문장은 중의성을 띄지 않는다. 그러나 수량 혹은 시량 성분이 '就' 뒤에 출현할 경우에는, '就'를 강하게 읽는지 여부에 따라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a. 生病的人就有十个。  
아픈 사람은 10명밖에 없다.
- b. '生病的人就有十个。  
아픈 사람만 해도 벌써 10명이 된다.

BBC 코퍼스

예문 (5)의 두 문장은 수량 성분이 전부 '就' 뒤에 출현한 문장이지만, '就'를 강하게 읽을 경우에는 범위를 한정 짓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량 성분이 소량이 된다. 그러나 (5b)와 같이 '就'에 강하게 읽지 않고, 주어 '生病的人'을 강하게 읽을 경우에는 '就'가 한정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출현한 수량 성분 '十个人'은 주관적인 대량을 나타낸다. 즉, 評注性 부사 '就'와 범위부사 '就'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就'의 강세에 있다는 것이다.

劉月華(2001)는 범위 부사 '就'는 뒤에 출현하는 수량성분 뿐만 아니라, 주어, 빈어, 술어 등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6) a. 今晚就我們倆一起吃飯。(주어의 범위를 한정)  
오늘 저녁에는 우리 둘만 같이 밥 먹어.
- b. 我們就只念一本《國語》。(빈어의 범위를 한정)  
우리는 《國語》 책 밖에 안 읽는다.
- c. 我們就呆着不動。(술어의 범위를 한정)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

BBC 코퍼스

강하게 읽어야 되는 또 다른 '就'는 어기부사 '就'이다. 劉月華(2001)에 따르면, 어기 부사 '就'가 출현하는 문장은 구조가 간단하며, '就'앞에 더 이상 조건,

시간 혹은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진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a. 我'就不吃, 我'就不吃。  
 난 안 먹을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b. 我'就討厭說假話的人。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딱 싫어 해!

劉月華(2001:252)

아울러, 접속부사‘就’는 주로 복문에 출현하며,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키는 동시, 어떠한 관계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접속부사는 대부분 ‘如果’, ‘只要’, ‘既然’, ‘要是’ 등 접속사와 함께 출현하며, 예컨대, “如果他去, 我就不去了。” 등이 있다. 이러한 문형 외에도 본고에서는 앞서 논의한 “說完就走”와 같은 긴축문에 출현한 ‘就’도 접속부사로 간주해야 된다고 본다.

### 3. ‘就’의 문법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사 ‘就’는 은유기제를 통해 동사 ‘就’에서 문법화 되었다(范立珂(2007), 許娟(2003) 등 참고). 그러나 이들은 왜 ‘就’의 문법화 과정에 은유기제가 작용 했다는 보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주기하(2013:140)는 임지룡(1997)에 근거하여,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공간영역의 이동은 시간영역으로 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就’가 나타내는 공간에서 거리의 짧음이 시간 영역으로 투사할 때 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은유기제의 작용 하에 동작이 빠르다는 것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 또한 의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사 ‘就’는 시간부사뿐만 아니라 評注性 부사, 접속부사, 범위부사 및 어기



부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부사 '就'는 어떤 순서로 파생 되었을까? 曹广順(1987)은 부사 '就'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작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였거나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음을 나타냄.

둘째, 범위 혹은 대상을 한정(혹은 확정)함.

셋째, 문장을 이어주면서, 결론을 도출해냄,

넷째, 강조의 의미를 나타냄을 제기하였다.

또한, 曹广順(1987)은 네 가지 부사 '就'는 약 南宋시기 때 동시에 출현하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은수(2012)는 曹广順의 견해를 받아 들여 宋代에 동사 '就'가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방향(가볍게 읽는 '就'와 강하게 읽는 '就')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기능이 현재까지 이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주기하(2013:133)는 학자들이 동사 '就'가 부사 '就'로 허화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예외 없이 모두 시간부사 '就'의 예문이기 때문에, 동사 '就'에서 부사로 문법화 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사 '就'가 다른 하위분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는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필자는 시간부사 '就'가 다른 부사 '就'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는 주기하(2013)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단지 다른 학자들이 제기한 예문이 전부 시간부사 '就'였다는 이유로 시간부사 '就'가 먼저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시간부사 '就'가 가장 먼저 생성된 이유는 주관화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즉 시간부사 '就', 評注性 부사 '就', 접속부사 '就', 그리고 여기부사 '就'의 주관성 강도를 비교해보면 시간부사 '就'는 동사 '就'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주관성이 가장 약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sup>2)</sup> a. 我這就來。 (시간부사)  
곧 가겠습니다.
- b. 明天就可以出門了。 (評注性 부사)  
내일은 벌써 외출해도 된다.
- c. 如果他去, 我就不去了。 (접속부사)  
만약 그 사람이 간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 d. 今晚就我們倆一起吃飯。 (범위 부사)  
오늘 저녁에는 우리 둘만 같이 밥 먹어.
- e. 我'就不吃, 我'就不吃。 (어기 부사)  
난 안 먹을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예문(8a)의 '就'는 시간부사로서, '짧은 시간 내에 곧 발생 함'을 나타낸다. 이는 물론 시간명사가 나타내는 시간의미보다 주관적<sup>3)</sup>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시간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다. (8b)의 評注性 부사 '就'는 객관적인 시간의미에서 벗어나, 화자가 주관적으로 '사건 발생이 빠름'을 나타낸다. 예문(8c)에서 (8e)의 부사 '就'는 객관성 및 주관성과 상관없이 아예 시간의미에서 벗어나 양태적인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에 (8d)와 (8e)의 '就'는 강세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욱 강한 어기를 나타낸다. 즉, 주관성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Heine et al(1991b)에서 제기한 은유의 투사 방향, 즉 “사람)사물)행위)공간)질”에 부합한 결론이다.<sup>4)</sup>

그러므로 부사'就'의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는 주장은 적

2) 편의상 앞 절에서 사용한 예문을 다시 옮긴 것이다.

3) 손정(2014) 등에 따르면 시간부사가 나타내는 시간의미는 시간명사보다 주관성이 강하다.

4) 이런 개념들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즉 한 개념은 다른 개념을 개념화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의 배열은 '공간은 사물이다'나 '시간은 공간이다'와 같은 개념적 은유를 구성할 수 있다. 'A는 B이다'와 같은 유형의 개념적 은유에서 A는 범주화 목표 구조를, B는 근원구조를 말한다. 예컨대, 많은 언어에서 신체 부위 BACK은 근원적 은유 '공간은 사물이다'로 기술된다. 그리고 공간 개념은 시간 개념인 목표구조로 문법화 되는 데, 이것은 개념적 은유 '시간은 공간이다'로 기술된다. 또한, “사람)사물)행위)공간)질”의 배열은 항상 단일 방향적이다. 즉 문법화의 경우에 왼쪽에 있는 개념이 오른쪽에 있는 범주로 문법화 되는 것이지,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동환(2005:219)에서 재인용.

합하지 않다고 본다. 부사 '就'의 생성 순서는 대체적으로 시간부사, 評注性 부사, 접속부사, 범위부사와 어기부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BBC코퍼스 현대 중국어에는 8417928개의 '就'구문이 수록되어 있다. 수량이 많으므로 앞 1000개의 예문만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就'가 단순히 시간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었다. 실제적으로 시간부사 '就'는 《現代漢語八百詞》 등과 같은 기존 서적 혹은 사전류에서 제기한 “我就去”와 같은 문형 외에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언어 사실 또한 부사 '就'가 문법화 되면서 시간의미를 점차적으로 소실하는 동시 주관성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부사 '就'의 의미기능

본 절에서는 우선 '就'가 부사로 허화 된 다음,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사로 발전하였는데 각 유형의 '就'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부사 '就'의 공통적인 의미는 빠른 연결 혹은 접근성, 배타성 혹은 유일성이다. 여기에서 빠른 연결과 접근성은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에 해당되고, 배타성과 유일성은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에 해당된다. 빠른 연결과 접근성은 전부 동사 '就'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다가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냄으로 A지점과 B지점을 '연결 한다', 혹은 A지점에서 B지점에 '접근 한다'에서 도출한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의미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빠른 연결로 통일하겠다. 이와 달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유일성과 배타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배타성의 부사는 반드시 유일성을 지니지 않지만 유일성 부사는 전부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劉立成 2005:2).<sup>5)</sup> 부사 '就'는 배타성을 나타내는 범위부사 뿐만 아니라 강조를 나타

5) 주기하(2014:251)에서 재인용.

내는 어기부사도 존재한다. 張誼生(2001:110)에 따르면 유일성 범위부사가 배타성의 일종으로서 사물의 양을 제한하고, 사물의 종류를 강조한다고 하였다.<sup>6)</sup>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배타성이 아닌 유일성으로 간주하겠다.

#### 4.1 부사 ‘就’의 기본의미

부사 ‘就’의 기본의미를 빠른 연결로 보는 학자는 許娟(2003), 이창호(2004) 등이 있다. 예컨대, 許娟(2003)은 부사 ‘就’는 연결(前后相承)의 의미를 나타내며, 각각 다른 문맥에서 나타내는 요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창호(2005)는 시간부사 ‘就’가 출현한 문장은 시제와 상관없이 사건의 발생 시점이 문장에 출현한 시간성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화자가 ‘就’를 쓰는 이유는 ‘심리적 근접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사 ‘就’는 문법화 과정에서 강한 주관성을 띄게 되었으며, 각 문맥에서 화자의 다양한 주관적인 양태, 어기 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現在就去。  
지금 바로 갈게.
- b. 全級40人, 尖子班就20人了, 讓我怎么比。  
전 학급에 40명인데, 영재 반에 벌써 20명이나 돼, 나더러 어떻게 비교하라고!
- c. 如果你再不回短信, 我就不理你了。  
만약 네가 계속해서 답장을 안 한다면, 나는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
- d. 反正我‘就’不去。  
어쨌든 나는 안 갈 거야!
- e. 他的世界里‘就’只有她了。  
그 사람의 세상에는 그녀 밖에 없게 되었다.

BBC 코퍼스

6) 주기하(2014:251)에서 재인용.

예문(9a)는 '就'가 목표지로 빨리 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빠른 연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9b)부터는 빠른 연결만으로 설명하기에 힘들다. 왜냐하면, (9b)는 시간이 아니라 수량성분이 출현한 문장이고, '就'는 여기에서 '화자가 보기에 영재 반의 인원이 너무 많음'을 나타낸다. 만약 이를 빠른 연결로 설명하자면, '영재'와 '20'명이라는 수량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위와 같은 화자의 주관적인 양태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의 의문이 든다. 또한 (9c)는 '就'가 접속부사로서 조건문에 출현한 경우이다.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선행 절의 조건과 후행 절의 결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에는 역지스럽다. 아울러 유일성 특징을 지니고 있는 (9d-e)의 어기부사 및 범위부사 '就'는 더욱 강한 어기를 나타내며, 빠른 연결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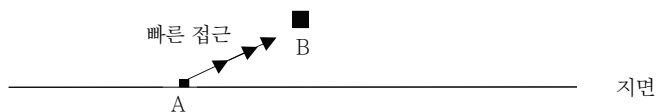
부사 '就'의 의미를 빠른 연결과 유일성 두 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이 은수(2012)는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두 사건 사이의 빠른 연결에서 '작은 조건→큰 결과'가 파생되었고,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목표에 접근하다'가 심리적인 측면의 '어떤 대상에 접근'으로 투사되면서 '就' 뒤에 출현하는 성분이 범위가 한정되거나 수량이 적음을 나타내고 하였다. 즉 유일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a. 他起床就八點鐘了。  
그가 일어났을 때 이미 8시가 되었다.
- b. 只要下功夫, 你就一定能學會。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배울 수 있을 거야!
- c. 昨天就他沒來。(別人都來了)  
어제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왔다.
- d. 他就要了三張票, 沒多要。  
그는 표를 3장만 달라고 하였다.
- e. 你不讓我干, 我就要干。  
네가 못하게 해도 나는 반드시 하고야 말거야.

예문(10)의 각 문장은 이은수(2012)가 《現代漢語八百詞》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은수(2012)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10a)와 (10b)는 ‘起床+8點鐘과 ‘下功夫+能學會’, 즉 ‘조건+결과’ 구조로 보았고, 이는 ‘두 사건이 연이어 발생 (즉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에 접근하다)’에서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파생된 ‘조건+결과’는 결과적으로 ‘작은 조건→큰 결과’를 얻으면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문 (10c-e)는 각각 ‘범위의 한정’, ‘수량의 적음’과 ‘건조한 어기’를 나타내며, 이는 동사 ‘就’의 공간적인 접근이 심리적인 접근으로 투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은수(2012)의 분석은 같은 공간적 접근이 왜 시간으로 투사 되었을 경우에는 ‘후행 사건이 선행사건에 접근 함’, 즉 ‘연결성’에 윤곽이 부여되고, 심리적으로 투사 되었을 때에는 목표대상에 윤곽이 부여되어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사 ‘就’가 부사로 문법화 된 다음, 어떤 기본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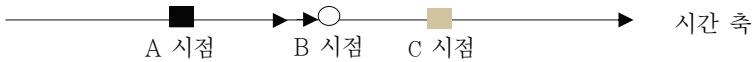
주기하(2013)에 따르면, 동사 ‘就’가 나타내는 ‘접근하다, 다가가다’의 의미에는 ‘빠르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는 (許慎의 《說文解字》 孔广居注에 따르면)고대에 동사 ‘就’는 홍수가 범람할 때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이것은 일종의 피난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주기하 동사 ‘就’의 의미도식

또한, 제 3절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동사 ‘就’는 다시 ‘공간은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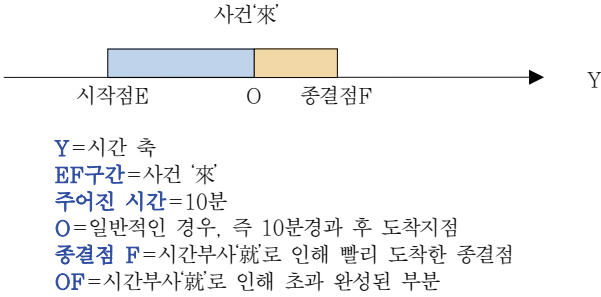
라는 개념은유를 통해 시간부사로 문법화 되며, 공간적으로 빠른 접근이 목표 영역인 시간축면에서 빠른 발생을 나타나게 된다. 앞서 제시한 시간부사 '就'의 예문 “我這就來”를 예로 들어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2〉 주기하 시간부사 '就'의 의미도식<sup>7)</sup>

〈도식 2〉에서 A시점은 '我'가 출발한 시점이고, B시점은 부사 '就'로 인해 '빨리 도착'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시점은 출발시간인 10시이고, B시점은 도착 시점인 10시 10분이며, C시점은 시간부사 '就'의 빠른 발생 의미가 없는 정상적인 도착시점 10시 15분이다. 즉, 이 문장에서 부사 '就'를 사용함으로써 원래는 C시점인 10시 15분에 도착해야 정상인데, '就'의 의미가 작용되어 조금 더 빠른 시간인 10시 10분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이고, 이를 다시 사건의 각도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7) 이 도식은 주기하(2013:141)에서 인용한 것이다. 본 고에서 주기하(2013)가 이 도식에 해당하는 예문을 들지 않는 이유는 주기하(2013)가 제시한 예문 “至三年春, 就納坑治司魏客將”(夷堅三志·辛九)에서 '就'는 화자가 판단하기에 '거상 2년만인 慶元 3년 봄에 재혼했다'는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주관적인 양태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의 '就'는 본고에서 분류한 評注性 부사 '就'에 해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도식에 대한 설명부분은 주기하(2013)의 분석에 동의하는 바이다.



〈도식 3〉 시간부사 '就'가 나타내는 사건 의미(허설영 2015)

〈도식 3〉을 설명하자면, 예문 “我這就來”에서 사건 ‘來’가 시간 축에 존재하며, 일정한 시간구간 EF를 차지한다. 사건 발생시간은 10분으로 가정한다. 시간부사 ‘就’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10분이 경과하는 동안 시작점 E에서 출발하여 O지점까지 도착한다. 그러나 같은 10분이 주어졌는데 시간부사 ‘就’의 수식을 받을 경우, 사건은 정상적인 O지점을 초과하여 F점까지 도착한다. 즉 같은 시간이 주어질 경우, 시간부사 ‘就’는 정상기준을 초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sup>8)</sup> 시간부사 ‘就’가 나타내는 이런 의미는 ‘就’가 계속 해서 문법화되면서 ‘시간은 질이다’는 개념은유를 통해 추상적인 심리에 투사되어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이라는 주관적인 의미가 파생된다.

그렇다면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을 나타내는 부사 ‘就’의 주관적인 의미가 부사 ‘就’의 기본의미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생긴다. ‘就’의 문법화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사 ‘就’의 주관성 강도를 근거로 보면, 동사 ‘就’는 먼저 시간부사 ‘就’로 파생되었고, 시간부사 ‘就’는 다시 評注性 부사와 접속부사, 그리고 계속해서 범위부사와 어기부사가 파생되었다. 시간부사 ‘就’는 동사의 근원영역에서 얻은 시간 의미, 즉 빠른 연결과 사건 각도에서 해석된 (사건이 같은 시간 내에 정상보다)초과 완성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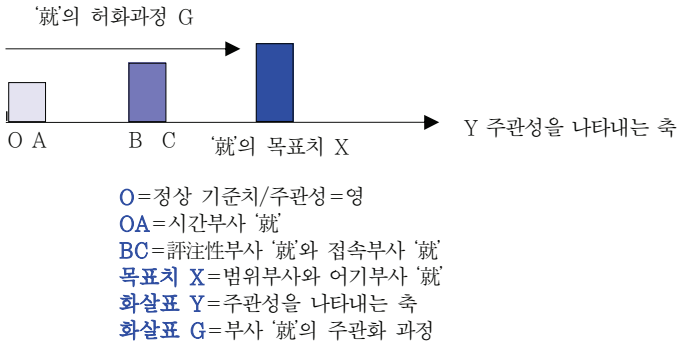
8) 허설영(2013)에서는 이미 부사'就'는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한다'는 주관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단지 허설영(2013)에서는 이론적인 근거 없이 기존 연구에서 채택한 예문에 대한 분석만으로 그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를 나타낸다. 빠른 연결을 나타내는 의미는 비록 근원의미에서 이어 받은 의미 이긴 하지만, 이를 부사 '就'의 기본의미로 보기에는 주관성이 강한 다른 부사 '就'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양태와 강한 어기 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앞에서 이미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부사 '就'의 기본의미는 (사건이 같은 시간 내에 정상보다)초과 완성되었다는 시간부사의 사건의미에서 파생된 주관적인 의미, 즉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본고에서 주장하는 부사 '就'의 기본의미, 즉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함'은 評註性 부사 '就', 접속 부사 '就', 범위부사 '就' 및 어기부사 '就'에 전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우선 이은수(2012)의 분석을 빌려서 이야기 하자면, 評註性 부사 '就'와 접속 부사 '就'는 '작은 조건→큰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본고에서 주장한 '就'가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就'가 '기준치 초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就'뒤에 출현하여 '就'의 수식을 받는 성분은 항상 '초과 된 수량/결과 등', 즉 주관적인 대량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就'앞에 출현한 성분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며, '작은 조건→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하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간혹 評註性 부사 및 접속부사와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범위부사 및 어기부사 '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자. '就'가 나타내는 주관적 의미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에서 '기준치'는 부사 '就'가 없는 일반적인 정상치를 가리킨다. 즉, 주관성을 나타내는 축이 있다면, '기준치'는 주관성이 '0(제로)'인 경우이며, 부사 '就'는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점점 강해지는 쪽에 존재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식 4〉 부사 '就'의 주관성(허설영 2015)

〈도식 4〉를 설명하자면, 화살표 Y는 주관성을 나타내는 축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관성도 O(O는 정상적인 기준치를 가리킴)에서 화살표방향으로 점점 강해진다. 화살표 G는 '就'의 허화를 나타내며, '就'는 동사에서 시간부사로 허화 되면서 우선 A에 도달한다. 시간부사 '就'의 구간이 OA인 것은 마침 동사에서 주관성이 강한 評注性 부사 '就' 등으로 허화 된 과도기 과정임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허화 되면서, '就'는 시간부사에서 評注性 부사와 접속부사로 허화 되며,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가장 강한 주관성을 나타내는 범위 부사와 어기부사 '就'로 발전하였다. 즉, 범위부사와 어기부사 '就'가 유일화 기능에 강한 배타성과 어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就'가 나타내는 주관성 의미,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가 최고 목표치 X에 도달하였을 때, '就'가 나타내는 주관성이 가장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 부사와 어기부사 뒤에 출현하며, '就'의 수식을 받는 성분은 윤곽부여 되며 강조 받게 된다. 또한 극적으로 강조 받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성분은 배척하게 되면서 유일성 특징과 반박의 어기 등을 나타내게 되며, 당연히 강하게 읽게 된다.

이상으로 논의한 결과, 부사 '就'의 근원 의미인 빠른 연결은 '就'가 허화 되면서 점점 소실되고, 대신 '就'가 나타내는 주관성 의미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은 각 문맥에서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 4.2 부사 '就'의 파생의미

본 절에서는 시간부사에서 파생된 '就'의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각종 유형의 評注性부사 '就' 구문, 접속부사 '就' 구문, 범위부사 '就' 구문 및 어기부사 '就' 구문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파생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評注性 부사 '就' 구분부터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기존연구와 코퍼스 예문을 조사한 결과, 評注性 부사 '就'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형에 출현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a. 我周日就回去了。  
나는 일요일에 곧 돌아갈 거야.
- b. 再不点名就冬天了。  
계속 출석 부르지 않으면 겨울이 되겠다!
- c. 還差仨人我的粉絲數就700啦。  
이제 세 명만 더 있으면 나의 팬은 700명이 된다!
- d. 這個草莓超級大, 我一個就吃飽了。  
이 딸기는 엄청나게 커서 하나만 먹었는데도 배부르다.
- e. 據中國軍方統計, 僅2010年一年, 全國暴動次數就已經超過了18万起。  
중국 국군의 통계에 따르면, 단지 2010년만 해도, 전국에서 발생한 폭동은 이미 18만 건을 넘었다.
- f. 邱壽齊出生于1921年, 10歲就開始當長工。  
邱壽齊는 1921년에 태어났으며, 10살부터 이미 머슴살이를 시작하였다.
- g. 今天的數學考試我用了十分鐘就做完了。  
오늘 본 수학 시험을 나는 10분 만에 풀어버렸다.

BBC 코퍼스

예문(11)의 8개 예문은 評注性 부사 '就'가 출현하는 대표적인 문형이다. 評注性 부사 '就'는 술어 성분, 명사 성분, 시간 성분, 수량/시량/나이 등 다양한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 부사 ‘就’가 나타내는 기본의미 ‘화자의 심리적 기대치를 초과 함’에 의하면, (11a)와 같이 ‘시간성분+就+사건성분’의 구조를 지닌 ‘就’구문은 ‘이른 시간,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함’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11a)는 화자가 느끼기에 ‘일요일’에 ‘돌아가는 것’이 아주 일찍, 빨리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반대로 (11b)와 같이 ‘사건+就+시간’구조를 지닌 ‘就’구문은 ‘就’뒤에 출현한 시간 성분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이 늦었거나 느림’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11b)는 ‘화자가 보기에 출석을 너무 늦게 불렀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이에 대해 불만의 감정도 나타낼 수 있다. (11c)와 같이 수량 성분이 ‘就’의 앞뒤에 전부 출현하였을 경우에는 앞 수량이 작게 느껴지고 뒤 수량이 크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11c)는 ‘이제 3명이라는 적은 수량만 있으며 700명이라는 많은 수량’이 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문맥상 팬이 많아지는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700명’이 많게 느껴지면서 기쁘고 놀라운 주관적 양태도 나타낼 수 있다. 예문(11d-e)는 수량성분이 각각 ‘就’의 앞과 뒤에 출현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就’의 기본의미에 의해 수량이 ‘就’앞에 출현하면 작게 느껴지고 뒤에 출현하면 크고 많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11d)는 ‘하나’라는 작은 수량에도 ‘배가 부르다’는 사건이 이루어 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화자가 보기에 ‘딸기’의 ‘크기’가 진짜로 엄청남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11e)는 수량성분 ‘18万’이 ‘就’뒤에 출현하므로 엄청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就’ 앞에 출현한 사건 ‘暴動’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11f)와 같이 ‘나이+就+사건’구조를 지니는 문장은 ‘어린 나이에 큰일, 혹은 힘든 일을 겪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11f)에서 邱壽齊이 10살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한 것은 화자가 보기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힘든 머슴 일을 시작하였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시량+就+동사’ 및 ‘동사+就+시량’구조는 각각 ‘짧은 시간 내에 큰 동작을 해냈기 때문에 효율이 높음’과 ‘작은 동작을 완성하는데 큰 시간을 소모하였으므로 효율이 낮음’을 나타낸다. (11g)는 전자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음’을 나타내며, 즉 화자가 보기에 수학 시험지를 엄청 빨리

풀었음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就'의 주관적인 기본의미가 접속부사 '就'에 적용될 때 어떤 의미가 파생되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2) a. 吃完就去。  
다 먹으면 바로 갈게.
- b. 你如果/要是去了我就對你不客气。  
만약 네가 간다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 c. “优生”只要成績好就可一俊遮百丑。  
우등생은 성적만 좋으면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
- e. 既然上了你的車就會百分百的信任你  
기왕 네 차에 탔으니, 너를 완전히 믿을 거야!
- f. 因爲/爲了很小的事就耿耿于怀。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다.

BBC 코퍼스

《現代漢語八百詞》에 의하면, 접속부사 '就'는 주로 '如果/要是/既然/因爲/爲了' 등 접속사와 결합하며,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 출현하여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을 연결해 주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2a)와 같은 긴축문에 출현한 '就' 또한 시간부사가 아닌 접속부사로 간주한다. 부사 '就'의 기본의미에 의해, 위 문장들은 전부 '작은 조건에서 큰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2a)에서 후행 사건 '去'는 선행 동작 '吃'가 발생한 다음 곧 바로 발생할 것을 나타내며, 문장의 중심은 후행 사건 '去'에 있다. (12b)는 '如果/要是'에 의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정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就'의 수식을 받는 사건이 발생 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런 문장 역시, '就'의 수식을 받는 후행사건이 훨씬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12c)와 같이 '只要...就'문형에는 '就'의 기본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아주 작은 조건이 주어져도 엄청나게 큰 사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2e)도 '기왕' 발생한 어떤

작은 일 때문에, (‘就’의 수식을 받는) ‘큰 일이 일어남’을 나타내고, (12f)는 어떤 작은 원인 때문에, (‘就’의 수식을 받는) ‘큰 일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부사 ‘就’, 즉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전부 유일성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강하게 읽는다. 우선 범위부사 ‘就’부터 분석해 보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범위부사 ‘就’는 명사 성분, 동사 성분, 수량 성분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a. 三尺六的袴腰, 全縣‘就他一个。  
허리둘레가 36인치인 사람은 縣 전체에서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다.
- b. 你和谷口‘就只會一味地討厭頭腦好的同學。  
너와 谷口는 머리 좋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미워 할 줄 밖에 몰라!
- c. 支付宝里‘就100塊錢還敢逛淘宝。  
알리페이에 100원 밖에 없으면서 淘宝에서 쇼핑을 하다니!
- d. 長這么大‘就去過一次儿童公園。  
여태까지 놀이동산에 한 번 밖에 못 가봤다.
- e. 那个分組里就你和我沒有別人。  
그 팀에는 너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BBC 코퍼스

예문(13)의 각 문장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범위부사 ‘就’ 뒤에는 어떤 성분이 출현 하던 그 성분의 범위를 한정하며, 다른 것들은 전부 배척한다. 이는 ‘就’의 허화 정도가 심해지면서, 주관성이 극적으로 강해진 결과이다. 어기부사 ‘就’ 또한 범위부사와 마찬가지로 ‘就’의 주관성이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강한 어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4) a. 那‘就是痛處。  
그것이 바로 고통 일세.
- b. 我‘就不交!  
나는 죽어도 안 낼 거야!

BBC 코퍼스

예문(14a)는 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며, (14b)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 역시 '就'가 나타내는 주관성 의미,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이 '就'가 나타낼 수 있는 주관성의 극에 도달하면서 생긴 것이다. 다만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유일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동시에,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즉 범위부사 '就' 구문에는 '就' 뒤에 동사 성분이 출현하든 명사 성분이 출현하든, 전부 양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범위부사는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반면 어기부사 '就' 구문에는 '就'뒤에 양을 포함한 성분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기부사는 강조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

## 5. 결론

본고에서 기존 연구와 BBC 코퍼스 조사를 통해 부사 '就'의 의미기능에 대해 再考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사 '就'는 다른 시간 성분 없이 시간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시간, 수량, 시량 등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評注性 부사, 긴축문과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접속부사, 유일성 자질을 지니고 있어 배타적인 기능을 하는 범위부사와 강한 어기 또한 견고한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부사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부사 '就'는 동사 '就'에서 허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은유기제가 적용되었다. 또한,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특징을 통해, 부사 '就'는 시간부사 '就', 評注性 부사 '就' 및 접속부사 '就', 그리고 범위부사 '就' 및 어기부사 '就' 순서로 파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就'의 주관성 강도는 시간부사 '就' < 評注性부사&접속부사 '就' < 범위부사 &어기부사 '就' 순서이다. 또한, '就'의 문법화 과정은 빠른 연결과 배타성, 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이 아닌 단일 방향성을 나타낸다.

셋째, 시간부사가 지니고 있는 근원 의미 빠른 연결은 나머지 부사 '就'가 나타내는 다양한 주관적인 양태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시간부사 '就'에서 파생된 주관적인 의미 '화자의 심리적 기준치를 초과 함'이 여러 유형의 부사 '就'의 기본의미이다. '就'의 이런 주관적인 의미가 문법화 정도가 심화 되면서 각각 評注性 부사, 접속부사, 범위부사, 어기부사로 발전한 것이다.

### <參考文獻>

#### 1. 국내외 논저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태학사.
- 손 정(2014), 《현대중국어 시간부사 의미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유정(2005), <허화 및 어법화이 개념과 과정>, 《中國語文學論集》, 29.
- 이은수(2012), <就和才의 語義分析>, 《中國語文論叢》, 58.
- 이창호(2004), <시간부사 '就' 소고>, 《中語中文學》, 25.
- 주기하(2013), <시간부사 '就'의 생성과정과 기제>, 《중국어연구》, 66.
- \_\_\_\_\_(2014), <현대 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 분석>, 《중국어연구》, 69.
- 허설영(2013), 《현대 중국어 시간부사 就/才와 '了'의 공기관계》, 高麗大學碩士學位論文.
- 曹廣順(1987), <試說'就'和'快'在宋代的使用及有關的斷代問題>, 《中國語文》, 4.
- 范立珂(2009b), 《副詞就的隱喻認知機制探析》, 賀陽學院學報, 6.
- 金立鑫·于秀金(2013), <'就'与'才'主觀量對比研究>, 《漢語學習》 3, 3-14.
- 李宗江(1997), <即, 便, 就的歷時關係>, 《語文研究》, 1.
- 呂叔湘(1980),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 劉月華외(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馬慶株(2000), <略談漢語動詞時體研究的思路>, 《語法研究和探索(九)》, 北京: 商務印書館.
- 施關淦(1988), <試論時間副詞就>, 《語法研究和探索(四)》,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87-204.

史金生(1993), <時間副詞就“再”才的語義, 語法分析>, 《邏輯與語言學習》3, 43-46.

王 還(1956/2012), <就與‘才’>, 《門外偶得集(第三版)》,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87-90.

許 娟(2003), 《副詞就的語法化歷程及其語義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張誼生(2000), 《現代漢語副詞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 2. 예문 출처

BBC 現代漢語語料庫

<http://bcc.bcu.edu.cn>

### < Abstract >

In this study,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gotten as the result of reconsider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dverb 'jiu(就)' through existing researches and BBC Corpus research.

First, 'jiu' can be divided into time adverb, evaluation form adverb (speaker judges time, quantity, amount of time etc subjectively), conjunctive adverb, scope adverb, and modality adverb.

Second, adverb 'jiu' becomes subjectivization from verb 'jiu', and metaphor mechanism is applied in the course. Also, through metaphor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adverb 'jiu' could be deduced as being derived like time adverb 'jiu', evaluation form adverb 'jiu', adjunctive adverb 'jiu', scope adverb 'jiu', and modality adverb 'jiu' in order.

And, subjectivity strength of 'jiu' displays time adverb 'jiu' < evaluation form adverb & adjunctive adverb 'jiu' < scope adverb & modality adverb 'jiu' sequentially. In addition,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jiu' shows uni direction instead of being splitted into two categories like quick connection and

exclusiveness.

Third, principle meaning contained in time adverb, that is quick connection, is insufficient to explain various aspects meant by remaining adverbs 'jiu'. Exceeding psychological standard of the speaker which is subjective meaning derived from time adverb 'jiu' belongs to basic meanings of several form adverbs 'jiu'. While degrees of grammaticalization regarding such subjective meaning of 'jiu' have been deepened, it has been developed to evaluation foam adverb, conjunctive adverb, scope adverb, and modality adverb respectively.

Key words: Time adverb 'jiu', Subjectivization, Subjective modality meaning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1.	2015. 7. 14.	2015. 8. 4.	2015. 8. 7.	2015. 8. 31.